

CoverStory

Chemulpo,
Jinsen 그리고 인천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Contents

ID Interview

연구/원/소식



근거리 항공시장 수요 및 발전 전망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근거리 항공수요와 발전전망에 관한 논의 및 인천지...

인천/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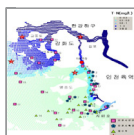


월미도 나들이
월미도는 60여년 전에 매립하여 이미 육지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 매립...



인천아프리에의 열번째 만남
현재, 인천개항기 근대건축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높은 중구 해안동 일대의 ...

시/정/연구



인천연안 해양환경모니터링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

도/시/동/향



아름다운 도시, 암스테르담
암스테르담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

신/간/소/개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획으로 출간한 ...

IDI 인/터/뷰

인천아트리에의 열번째 만남

현재, 인천개항기 근대건축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높은 중구 해안동 일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이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료를 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는 중이지요. 그곳이 바로 중구미술문화공간(가칭 '예촌')이에요.

• Cover Story

• ID인타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호 ▼

검색

▶ 웹진구독신청

◆ 요즘 중구 해안동 일대에 저리 잡은 근대 건축물을 대상으로 근·현대의 조화를 이룬 인천의 새로운 문화를 위한 움직임들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현재, 인천개항기 근대건축 문화유산 중 보존가치가 높은 중구 해안동 일대의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재를 보존하면서도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작업실과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이들에게 아주 저렴한 비용에 임대료를 하는, 미술창작스튜디오를 건립하는 중이지요. 그곳이 바로 중구미술문화공간(가칭 '예촌')이에요.



문화예술과 김미옥 전문위원

2001년 우리나라 개방의 중심지인 중국의 근대건축물은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보존해야한다는 목소리와 도시를 재개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생시키자는, 이른바 '도시재생' 이 문화정책의 화두가 된 시대적 상황이 맞아떨어져 근대와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공간, 창작스튜디오를 구성해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난거죠.

창작스튜디오의 특성상 넓고 마음껏 개조가능한 창고가 적임이라 대한통운의 창고를 리모델링하기로 하여 현재, 주택건축과에서 '가칭'예촌' 건립을 진행중에 있으며, 건립후, 관리 및 운영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문화예술과가 담당하도록 계획되어 있어요.

◆ 인천의 미술문화공간에 자리잡게 되는 창작스튜디오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 창작스튜디오는 예술작가들의 성과물인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과는 달리 작가들이 미술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공간이에요. 또한, 중구미술문화공간은 작가들의 창작 공간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예술을 매개로 한 시민과 예술가의 만남의 장으로도 기능하게 될 거예요. 차후에 실행부서가 꾸러지면 결정되겠지만, 입주 작가들은 공공 영역으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작업을 다시 공공의 영역에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해야 하는데, 그 기여의 대표적인 방식이 시민들에 대한 예술교육프로그램으로 구체화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들면, 도예작가가 입주하게 되면 도예를 직접 배울 수 있고, 사진작가가 입주하게 되면 전문가에게 사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창작스튜디오의 시민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예술과 시민이 능동적인 관계로 발전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 중구미술문화공간으로 인해 앞으로 인천의 문화시설에 장밋빛 청사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구미술문화공간의 건립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 공공미술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천시에 예술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중구미술문화공간이 건립되면,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창작스튜디오, 작가들이 쉽게 만나 토론할 수 있는 담론공간뿐만 아니라, 조각공간 등과 같은 축제공간이 구성되어 작가는 중구에서 크게는 인천시가 문화적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미술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예술가들을 인천에 모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어요.

인천 시민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중구미술문화공간은 언제쯤 완공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어떻게 운영이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주택건축과에서 중구미술문화공간의 건립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 9월 중순쯤 시민들에게 개방되어 잘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저희 문화예술과는 중구미술문화공간이 개관하면 미술인들에게는 안정적 작업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미술을 매개로 많은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사무를 이관할 계획이에요.

마지막으로, 인천의 문화적 자존심으로 이어질 중구미술문화공간의 건립에 기대가 큰 시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동안 인천에는 예술인과 시민들이 같이 호흡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나마 인천을 대표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이 그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 왔지만, 이제는 그런 공간이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화되어야 할 단계예요. 이런 차원에서 작가를 지원하는 창작공간이 생겨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술가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이 다시 사회에 공공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문화와 예술의 사회적 기능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문화행정가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능과 역할이 시민과 공유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다양한 공간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입니다.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 호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연/구/원/소/식

지역혁신협의회 2007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2007년 5월 28일 월요일

인천지역혁신협의회에서는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07년 5월 28일 오후 3시에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을 심의하는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IDI춘계체육행사



2007년 5월 10일

옥포만(灣)을 굽어보고 있는 이 산은 조정의 신하가 조복을 입고 조아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인다 하여 '국사봉'이라 불리우는 산. 정상에서 동쪽으로는 옥포만과 함께 대우조선소가 한눈에 들어오고 서쪽으로는 지세포로부터 와현, 구조라해수욕장까지 조망되는 이곳에서 인천발전연구원 직원들은 춘계체육행사를 가졌습니다.

근거리 항공시장 수요 및 발전 전망



2007년 5월 3일 목요일

인천을 거점으로 하는 근거리 항공수요와 발전전망에 관한 논의 및 인천지역의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5월 3일 오후 3시 본원 2층 대회의실에서 근거리 항공시장 수요 및 발전 전망에 관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인천시에서 계획·추진 중인 근거리 저가항공사(LCC)와 관련된 사항의 전반적인 검토와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인/천/나/들/이

월미도 나들이

인천관광공사 정소연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호

검색

웹진구독신청

월미도는 60여년 전에 매립하여 이미 육지로 변한지 오래 되었다. 매립 전 월미도는 모양새가 마치 반달의 꼬리처럼 길게 휘어져있다고 해서 월미(月尾)로 불렸다고 한다.



월미도 나들이

처음 인천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인천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다.

새로운 곳에서 터를 내려야 한다는 막막한 긴장과 호기심으로 출발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요즘, 인천은 나에게 있어 제2고향이 되었고,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인천의 매력들을 만나고, 또 찾고 있다.

주위 사람들에게 인천에 대해 물어보면 다들 “월미도 바이킹”의 아찔함에 대해 많이 이야기한다. 도대체 그 바이킹이 뭐길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낭만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끔찍한 추억이 될까? 솔솔 호기심이 발동했다.

가보아야 겠다!

처음 월미도에 가려니 어떻게 가야할 지 막막했다.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올린 답사기, 교통편, 먹거리 등 많은 정보들을 수집해 보았지만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인천 중구청 홈페이지(www.icjg.go.kr/tour/)에 접속해서 문화유적부터 추천/테마관광까지 다 읽고나면 인천이 근대사의 시발지, 최초의 역사, 근대 건축물 등 많은 관광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VR파노라마를 통해 월미산, 월미문화의 거리 등 실제모습을 볼 수 있다. 더불어 여행코스도 접할 수 있다.

월미도는 60여년 전에 매립하여 이미 육지로 변한 지 오래 되었다. 매립 전 월미도는 모양새가 마치 반달의 꼬리처럼 길게 휘어져있다고 해서 월미(月尾)로 불렸다고 한다.



<그림>매립 전 월미도
자료:화도진도서관

지하철 1호선 중점인 인천역에서 버스를 타고 10분정도 가면 월미도에 도착할 수 있다. 지금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니지만 예전에는 독길 위로 걸어다녔다. 1930년대에 지금의 대한제분공장앞에서 월미도에 이르는 1km에 독길을 축조했다. 매립공사 이후 요정과 호텔 등 각종 편의시설들이 들어서면서 전국에서 유일한 임해유원지로 유명해졌다. 그 유명세는 월미도의 연보연결(戀보戀結: 보는 boy, 걸은 girl)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월미도가 유원지로 널리 알려진 것은 당시 철도국이 경인간 승객을 유치하기 위해 바닷물을 데워 오늘날 해수탕의 원조격인 조탕과 인공해수풀장을 만들어 놓으면서였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봄이면 벚꽃놀이로, 여름에는 해수욕을 즐기려는 사람으로 붐볐다.

월미도에 진입하면 나지막한 월미산과 중턱에 솟아있는 전망대가 눈에 들어온다. 1918년 일제시대 때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낙조와 자연풍광이 아름다운 월미도를 풍치지구로 설정한 뒤 녹화사업을 벌였다. 월미산을 중심으로 순환도로변에 벚나무를 심고 채벌금지령을 내려 한 국전쟁까지만해도 월미도는 인천의 유일한 녹화지대로 남아있었다.



〈그림〉 월미도 조탕
자료:화도진도서관

지금도 월미산의 산림은 울창하다. 여름이면 나무 그늘 아래 돛자리를 펼쳐놓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지금 월미산 인근에는 이민사박물관을 짓고 있어 앞으로 하와이이민역사까지 배울 수 있다. 또한 전통정원을 조성하고 있어 자연과 교육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월미 전망대에서는 360도 회전하며, 인천항, 자유공원, 인천시내, 가까운 섬까지 한 눈에 볼 수 있다.

심야에는 전망대의 야간조명까지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한다.

월미산 산책 후 “월미문화의 거리”로 가보아야 한다. 문화의 거리는 1989년에 750m의 해안선을 포장하고 각종 조각물과 야외 무대를 조성했다. 하지만 문화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200여곳이 넘는 핫집, 카페, 여관 등의 위락시설이 집중되었다. 지금은 예전 처럼 불비지는 않지만 위락시설은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그 중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에전레스토랑”을 중심으로 30여 곳의 카페들이 즐지어 있다. 카페의 2층으로 올라가면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어 연인들에게는 인기만점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애견카페도 있다.



〈그림〉 월미전망대

문화의 거리 끝지점에는 친수공간과 야외무대가 있다. 빨간 미니등대가 있는 친수공간에서는 바닷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다. 야외무대에서는 인천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월미달빛누리행사(www.into.or.kr)관계로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저녁에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여름에는 오색분수에서 더위를 식히는 아이들을 만날 수 있으며 야간에는 15개의 빛기둥인 빛의 열주로 화려해진 문화의 거리를 볼 수 있다.

문화의 거리 중간쯤에 그 유명한 유람선과 놀이동산이 있다. 유람선은 월미도 앞바다를 1시간 20분 정도 운항하며, 선상공연도 볼 수 있다. 매주 토요일 디너크루즈를 운영한다. 놀이동산은 이미 근처에만 가도 바이킹을 타는 사람들의 함성소리와 디스코광광을 구경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할 수 있다. 긴 설명이 필요 없는 놀이기구들이다. 월미도에 왔다면 꼭 한번 타보아야 한다.

이와같이 월미도에는 역사, 바다, 산림욕, 낙조, 놀이동산, 카페촌, 핫집 등 많은 관광거리들이 밀집되어 있다. 월미도에서는 월미 제야의 밤 런닝페스티벌 월미관광특구행사, 월미달빛ㄴ 등 연간 많은 행사들이 상시로 개최되고 있다 .

이번 다가오는 주말에 날씨도 좋으니 친구, 가족,연인들과 월미도에 꼭 한번 가보자!
어떤 행사들이 펼쳐질지 모르니...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호

검색

웹진구독신청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연안 해역의 수질을 포함한 물리화학적인 수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천연안 해양환경모니터링 개선방안

● 들어가며

최근 연안도시만이 누릴 수 있는 생활환경으로서의 가치와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천 연안은 한강하구 등으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의 유입과 대규모 공유수면매립사업등의 연안 개발과 해양공간 이용의 확대에 따라 해양생태계가 변화하고 바다가 가지는 풍부한 자정 능력조차 초과할 지경이 되어 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연안의 해양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해양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모니터링 작업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인천광역시와 해양수산부에 의해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오염실태 모니터링이 행해지고 있으나 한강하구 등을 통해 인천연안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 및 해상오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실정이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천연안 해역의 수질을 포함한 물리화학적인 수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해양환경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인천연안 해양환경모니터링의 현황 및 분석결과

인천연안의 오염실태 파악을 위해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에서 인천연안 15개 정점에서의 해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해오고 있으며, 2004년도부터 시화호 주변에 대한 3개 정점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1996년부터 18개정점을 조사하였고 2000년도부터 24개 정점으로 확대하여 해수질과 해양퇴적물 오염도를 병행 조사·분석하고 있다.

기존 해양환경모니터링 정점의 공간분포를 분석한 결과, 현재 설정된 해양관리의 각 등급별로 살펴보면 Ⅱ등급 해역에 27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Ⅰ등급 해역, Ⅲ등급 해역 순으로 나타났다. 한강하구에는 해양수산부와 환경부의 관할권 문제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해양환경모니터링 측정정점이 없는 실정이며 대이작도 생태계보전지역에도 측정정점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정점 측정만으로는 하루 중에도 대여섯가량 큰 폭으로 변화하는 COD, T-N, T-P등을 대표할 수 없으므로, 자동화된 계선 관측(mooring observation), 실시간 모니터링, 3차원 자료 분석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하구 및 인천항 주변 연안으로부터 인천 앞바다로 흘러들어오는 오염부하에 의한 COD, T-N, T-P농도분포를 수치모델링에 의해서 시공간적으로 추정된 결과를 기존 57개 해수질 측정정점의 위치 및 해수유동 모델링 결과를 참조하여 분석한 결과, 한강을 통한 육상기원 오염물질의 공간적인 변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특정목적의 신규 측정정점(안)이 도출되었다. 신규 4개소의 측정정점은 인천연안의 평균적인 해수질 파악을 위해 운영 중인 기본 측정정점을 최대로 활용하면서 시공간적인 해수유동 및 오염물질확산을 과학적인 모델링 기법으로 추정한 근거에 기반하여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크다.

● 인천연안 해양환경모니터링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는 인천연안으로 유입되는 육상오염원 및 해상오염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 해양환경모니터링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를 행한 결과 해양환경측정망 개선 및 해양수질환경자동모니터링 확충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세 부 방 안	개 선 내 용	고 려 사 항
한강 하구역 인접 해역 측정망 보완	한강 하구역 인접 해역 측정정점 4개소 추가	특정목적:한강을 통한 육상 기원 오염물질 공간적 변이 모니터링 인천앞바다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분담 사업비 지원
ㄱ정지역 조사횟수 확대 및 시기 일치	연2회 조사 →연4회 확대 조사시기 일치 : 3,6,9,12	분석비용 추가 연구사 증원필요
해양 퇴적층 조사지점 및 조사횟수 확대	전체지점 퇴적층 조사확대 (연안24개, 특정15개) 3~9월→3,6,9,12월 조사횟수 및 시기 일치	수심별 모니터링 병행 연구사 증원 필요
향후 측정망 개선시 기타 검토사항	바다쓰레기 측정망 확충 대이작도 인근 해역 등 해양보호구역 측정망 보완 해양생태계 조사병행 서해5도 등 접경지역 측정망 확충	장기적인 해양환경보전계획 수립과 병행
해양수질환경자동모니터링 확충	교동도, 석모도, 서귀도 인근 해역 확충	기존 시화호 인근 해역 확충 방안 재검토 설치비 대당 2억여원, 운영비 연간 2천여만원

다양한 주제가 있는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제언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천광역시 도시공원은 총 547개소 59,022천㎡가 현재 지정되어 있으며, 도시민의 여가공간 및 도시의 생태네트워크 구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앙공원은 1988년부터 2005년까지 18년에 걸쳐 조성되었으며 전체 9개 지구로 나누어 단계별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초기에 조성된 지구의 경우에는 시설물이 노후되고 나무들도 잘 못자라는 곳이 다소 있다.



인천광역시 중앙공원 1~9지구 위치

중앙공원은 남북으로 길게 뻗은 벨트형 근린공원으로써 지역주민의 여가활동의 장, 정서적, 신체적 건강 증진의 장으로 중요시되고 있으며 주변에 인천시청, 인천교육청, 인천고속버스터미널, 인천문화예술회관 등의 공공시설과 백화점 등의 대형 상가들이 입지하고 있다.

본 과제는 중앙공원이 인천광역시의 도심 녹지축의 기능과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시민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구별로 주제 부여

도시공원분야의 최근 경향은 주제가 있는 공원조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앙공원은 향후에 다양한 주제가 녹아있는 공원으로서의 탈바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다음은 일부 지구에 대해 제안한 주제들이다.

- ◆ 3지구 : 연못 및 계류 조성
 - 인천지하철인 간석오거리역에서 용출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3지구에 계류를 조성하고 그 하단에 연못 조성
- ◆ 6지구 : 정형식 정원 조성
 - 올림픽을 주제로 조성된 6지구 내 올림픽기념탑을 중심으로 기념성과 상징성이 강한 정형식 정원형태로 올림픽이나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을 주제로 정원 조성
- ◆ 8지구 : 광장조성
 - 인천고속버스터미널, 백화점, 아파트 등의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이용중심의 광장기능을 갖는 공원과 주민 여가 공간기능을 갖는 공원 조성
- ◆ 9지구 : 생태숲 조성

연결동선 및 이용편의시설 제공

중앙공원의 지구간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1지구" 2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는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3지구" 4지구는 지형 여건에 따라 보행육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원 내 각종 시설의 위치를 알려 줄 종합안내판, 공원시설 안내판, 방향지시판 등 안내판 및 게시판의 재정비와 확충이 필요하며 체육 및 운동 수요가 높은 지구뿐만이 아니라 중앙공원 전체의 기존 운동시설물 현황을 파악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앙공원 전경(5지구 일대)

식재관리 및 추가식재 실시

산책로 주변에서 확인된 불량수목은 녹지대 내부로 이식하여 공원을 숲으로 조성하며 중앙공원 외곽과 도로 경계부의 완충녹지를 보완하기 위해 관목의 보식과 다층구조의 식생을 조성하여 그 기능을 보완하여야 한다.

수목 생육기반 조성

모과나무, 산수유, 감나무, 자두나무 등 공원 내 식재된 유실수는 관리가 부족하여 생장상태와 수형이 불량하였다. 토양시비 및 가지치기 등의 특별 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속성수나 생장이 불량한 느티나무, 빛나무 등이 식재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수목관리기관에 관리계획용역을 의뢰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생육불량지역에 대한 토양개량 등의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지구별 상수관로의 연장 등의 설비보완과 인근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

해/외/출/장/리/포/트

아름다운 도시, 암스테르담

도시계획·교통연구실 손지연 초빙책임연구원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 호

검색

웹진구독신청

암스테르담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였다. 지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은 네덜란드에는 1500년 전부터 도시내에 운하를 파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만큼 수로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를 이용한 관광사업이 발달하여 비수기에도 유람선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아름다운 도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도시, 암스테르담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 한참을 망설였다. 한마디로 말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담고 있었기에 그저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 이상 다른 어떤 수식어구도 필요치 않은 "아름답다" 라는 단어를 생각해내고 한 참을 만족스러워 할 수 있었다. 암스테르담의 도시 곳곳을 소개하기에 앞서, 도시에 대한 느낌을 한마디로 정리하려 했던 이유는 사실 감성적인 이유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다.

암스테르담은 아름다웠다. 도시의 운하가, 이국적인 건물들이, 여유로워 보이는 그들의 눈빛이 그러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그들이 이루어낸 자연과 인간,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운 공존" 이었던 것이다.



스키폴 공항 외부



대규모 멀티플렉스를 연상시키는 공항내부

첫 번째 감동은 스키폴 공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스키폴공항은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제3의 항구라 불리며 유럽대륙의 물류중심지가 되고 있는 중요한 곳이다. 스키폴 공항이 남다르게 느껴졌던 것은 인천시의 정책적 목표인 21세기 동북아시아 물류중심지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이곳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스키폴 공항은 사용자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도 유명한데, 공항내부는 쇼핑, 비즈니스 및 휴식기능을 제공하는 다기능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대시설 이외에도 공항이용객의 70%정도가 환승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의 환승시간을 1시간 이내에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도시를 가로지르는 운하였다. 지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해수면보다 낮은 땅이 많은 네덜란드에는 1500년 전부터 도시내에 운하를 파서 교통수단으로 이용했을 만큼 수로가 발달되어 있다. 특히 이를 이용한 관광사업이 발달하여 비수기에도 유람선에는 빈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운하를 따라 걷다보면, 관광용 선박 외에도 많은 수상용 가옥을 많이 볼 수 있다. 무려 2700여대나 되는 수상용가옥에는 상하수도 시설은 물론 전기까지 공급된다고 하니, 한국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고 온 셈이다.



운하 주변의 수상가옥과 전통적인 건물들

암스테르담에서는 여담으로 매년 수로청소를 하는데 그때마다 수천대의 자전거가 나오며, 심지어 자동차까지 나온다고 한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려들을 수도 있겠지만 이면에는 암스테르담시가 수로의 운영관리에 애를 먹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암스테르담의 마지막 감동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체계에 있었다. 암스테르담 역시 출퇴근시에 정체가 매우 심한 편이었는데,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와 보행자가 얹혀 통행하는 모습이 무질서하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그러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자전거신호등을 철저하게 지키고, 자동차운전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



암스테르담의 도로 전경

네덜란드 정부는 1970년대부터 도심의 교통난과 환경오염 및 에너지문제 해결을 위해 자전거에 주목하게 되었고, 자전거를 독립된 교통수단으로 인식하면서 도심에서의 자동차를 억제하고 자전거이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은 지속적으로 시행했다.

암스테르담의 자전거택시

운전자를 제외하고 2명이 탑승 가능하며, 관광용으로 운행되고 있다. 자동차운전자는 대중교통 이용승객이 될 수 있으며, 이들은 또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이기도 하다. 암스테르담의 교통문화는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신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간/소개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화 전략

- Cover Story
- ID인터뷰
- 연구원소식
- 인천나들이
- 시정연구
- 도시동향
- 신간소개

2007년 5월호 ▼

검색

▶ 웹진 구독신청



산업연구원

전환기 중국산업연구 시리즈의 일부로 진행된 연구의 결과 보고서.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중국경제의 부상 등 한중 양국을 둘러싼 여건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여 한8228;중간 상생의 경제협력 구도와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중국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글로벌 전략과 해외투자정책, 외국인직접투자 정책의 변화 등을 분석하여 정부와 기업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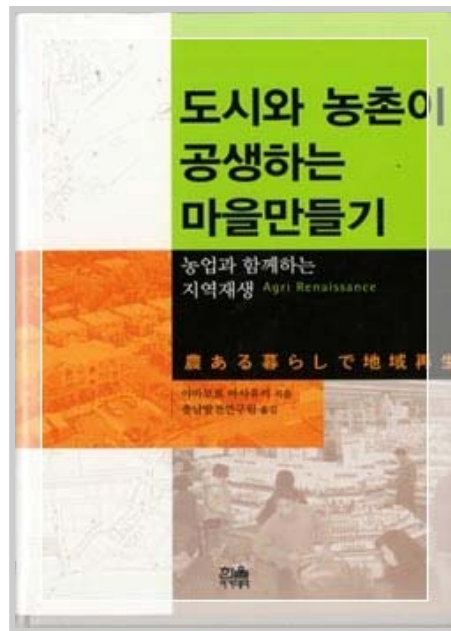
황해문화 2007 여름호



새얼문화재단

새얼문화재단의 계간지 2007년 여름 최신호.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글로벌 인천은 살기 좋은 인천인가'를 주제를 담고 있다. '인천이 진정한 고품격 세계도시가 되려면'이라는 권두언을 필두로 하여, 세계화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천의 현재 모습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여섯 명의 필자가 자신의 관점에서 풀어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한울 아카데미

충남발전연구원에서 기획으로 출간한 도시와 농촌이 함께 공생하는 마을만들기 관련 번역서.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변화하는 도시민의 가치관이나 라이프스타일, 농촌주민의 의식 등을 살펴보고 도시 농지를 활용한 마을 재생에 관하여 제안하고 있다. 농촌자원을 살려, 도시민을 농촌생활과 접목할 수 있게 하고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지역을 재생하여, 이른바 '전원마을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담고 있다.